

전주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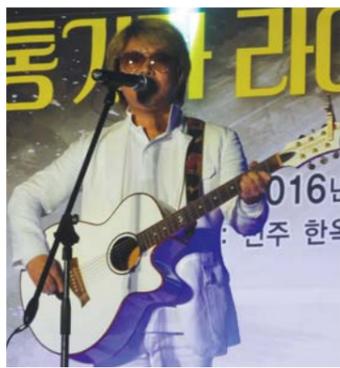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음 8월 26일) 제164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사)전북다문화진흥원이 주최, 주관하고 본사와 전북도, 전주시가 후원한 제1회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공경이 지난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자전거 탄 풍경(사진 왼쪽 상단)과 고재근(사진 오른쪽 하단) 등이 출연해 열띤 공연을 벌였다.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공경 성료

감미로운 통기타 선율 한옥마을을 수놓다

자전거 탄 풍경 · 고재근
안재석 · 모듬포크 등 출연

삼삼한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통기타 선율은 가을에 접어들어 한옥마을을 잠시 아련한 추억의 공간으로 채색했다. 자신의 히트곡과 7080세대 음악으로 관객들과 일체감을 형성한 출연가수들은 한옥마을의 가을밤을 열기와 환희가 넘실대는 행복의 공간으로 이끌었다. (사)전북다문화진흥원이 주최, 주관하고 본사와 전북도, 전주시가 후원한 제1회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공경이 지난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전문 MC 서정우씨의 사회로 이날 저녁 7시30분부터 시작된 첫 공연은 자전거 탄 풍경과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등이 출연해 자신들의 히트곡과 7080세대 음악을 아우르며 공연장을 가득 메운 1천여명의 관객들을 아련한 추억의 세계로 이끌었다. 이어 같은 시간에 열린 두 번째 주말 공연엔 Y2K의 고재근과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등이 출연해 포크송과 7080시절에 유행했던 다양한 통기타 음악을 들려주며 1천여명이 음집한 공연장을 열기와 환희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편 공연 시작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등 시관계자들과 본사 조봉성 대표, 관객 등 1천여명이 자리를 함께 해 성황을 이뤘다. 조 대표는 대회사에서 "한옥을 넘어 세계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문화적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일상의 삶에 지든 심신이 맑아진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어 축사에서 "전통의 숨결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옥마을에서 통기타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는 것"이라며 "이런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고 이곳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을 상용차산업 중심지로'

도내 상용차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 등 각계 층이 뜻을 모은 융합 콘퍼런스가 출범했다. 25일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 23일 전주 르윈 호텔에서 현대자동차와 부품업체, 대학,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제1회 H-융합콘퍼런스 및 상용차 산업 기술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합과 융합을 뜻하는 하모니의 의미를 지닌 H-융합콘퍼런스는 완성차인 현대차와 부품협력업체, 대학 산학협력단, 전북도와 완주군 등 지자체,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40여개 산학연관이 참여한다. 앞으로 이들은 산학연 융합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용차 시장의 기

도, H-융합콘퍼런스 개최 상용차 시장 발전 논의

술패러디엄 변화를 직시하고 향후 기술개발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주제로 선정됐다. 현대차의 '상용차 기술개발 동향'과 도레이 첨단소재의 'PFS(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로 열에 강하고 강도가 높아 자동차와 전기·전자 제품, 기계류 등에서 금속을 대체하는 고분자 신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경량소재 적용기술, '미국 대체부품 시장 전망' 등의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미국대체부품 시장 진입을 타진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지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 설명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관심 있는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서울모터쇼에서 상용차의 자율주행기술 및 전기차기술이 최대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이번 회의는 이처럼 상용차 분야에서도 차량간격 제어를 통하여 연속되는 차량을 가깝게 유지시킨 차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군집주행(Platooning)과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전기트럭·버스, ICT 등 타산업과 융합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했다. 이에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는 도내 기업들도 이러한 최신 기술개발 동향에 따른 다양한 협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자동차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원은 "전북자동차부품 융합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관 공동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이번 콘퍼런스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도와 기술원은 H-융합콘퍼런스를 상용차 분야 산학연관 네트워크 허브의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 발굴 및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콘퍼런스를 통해 도출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중앙부처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박 대통령 '수용 거부'

더민주 '오만과 불통의 극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경우는 김 장관이 6번째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해임건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전날인 지난 23일,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저지를 위해 정부와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벌이면서 날을 넘기기도 했으나 다음날인 24일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오만과 불통의 극치"라며 "국회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뉴시스